## 특별강연

| 일시 2017년 5월 18일(목) 16:00 ~ 17:50 | 장소 한라홀(3F)



윤세리

법무법인(유) 율촌 대표변호사

## 에너지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개관 및 최근 동향

원전 수출을 비롯한 에너지 프로젝트는 대규모의 자금 조달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자금지원은 하고 같은 금융기관(대주) 기타 투자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수행의 관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업의 첫 추진 단계에서부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하여 은행 등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조달이 가능한가(bankability)의 관점에서 프로젝트의 주요 조건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번 특별강연에서는 에너지 분야의 지금 조달 방식과 관련하여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 지금 조달을 위하여 자주 사용되는 방식인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를 법적 측면에서 개괄적으로 설명하면서 몇 가지 실무적인 안내를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분야에서의 자금 조달 관련 현황 및 쟁점사항 등을 먼저 소개한 후, 최근 동향에 대하여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기본 구조(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진행 방식 및 자주 사용되는 거래 구조 등)를 설명드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을 사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법적 측면에서의 핵심 고려사항은 에너지 사업의 위험을 어떻게 분배(risk allocation)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통상 검토되는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을 포함하여, 에너지 프로젝트의 주요 당사자(Key Player)들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전중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왜 어떤 위험은 두려운가? - 진화심리학의 관점

사람들은 어떤 위험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반면, 다른 위험은 지나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통제할 수 없고, 단번에 많은 사람을 죽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고, 새롭고 낯선 위험을 우리는 과대평가한다. 원자력 발전소 사고, 핵무기, 신경가스 사고, GMO(유전자 조작 식품), 수돗물 불소 첨가, 화학 비료 등이 그 예다. 반면에, 통제할 수 있고, 한 번에 한 사람만 죽이고, 자발적으로 선택했고, 익숙한 위험을 우리는 과소평가한다.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음주, 흡연, 낙상, 가전제품, 실내 수영장, 의료 사고 등이 그 예다.

그러나, 위험에 의한 사망자 수로 따지면 이러한 위험 지각은 종종 비합리적으로 보인다. 미국 대학생들과 성인 여성들은 핵무기가 자동차보다 더 위험하다고 답하지만, 실제로 핵무기에 의한 사망자 수는 자동차 사고의 사망자 수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위험을 유독 더 두려워하는가? 진화심리학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진화심리학을 따르면, 마음은 수백만 년 전에 살았던 인류의 진화적 조상들이 대개 수십 명으로 이루어진 작은 집단 내에서 수렵—채집 생활을 하면서 부딪혔던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하게끔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가 '설계'한 수많은 심리 기제들의 집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두려움이라는 정서는 위험한 상황을 피하고 모면하게끔 진화한 심리적 적응이다.

진화적 시각은 왜 다양한 위험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지각과 대응이 종종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가를 설명해준다. 예를 들어, 진화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정기적으로 상호작용해 온 지인들의 그물망 크기는 100~200명이었다.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을 한꺼번에 잃는 일은 우리 조상들의 번식 성공도를 급락시키는 매우 중대한 일이었으므로, 우리는 100명 정도를 죽이는 사고를 그보다 더 적은 수(예: 10명)를 죽이는 사고보다 더 두려워하리라고 기대된다. 동시에, 1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수(예: 1000명)을 죽이는 사고를 100명을 죽이는 사고보다 특별히 더 두려워하지는 않으리라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위험들에 대한 우리의 지각과 대응 방식은 "심층적인 수준에서 합리적"임을 강조한다.